

#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생애 첫 학습 여행 실시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일원에서 "생애 첫 학습 여행"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습 여행은 성인문해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문해교육 한마당과 연계해 추진됐다.

학습자들은 예산군 예당호 일대에서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긴 뒤,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과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찬욱 평생학습과장은 "성인문해학습자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다른 학습자들과 교류하며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현재 읍면동을 순회하는 문해교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 학력·중등 학력 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초등 학력 과정 4개소와 중등 학력 과정 1개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성인문해학습자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뉴스]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생애 첫 학습 ...

[충청메시지]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생애 첫 학습 ...